



2010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가 오는 31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광주시청 앞을 출발해 나주 동신대학교~호남대까지 46km 구간을 달리며, 남도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행복한 질주' 코스다.

<광주일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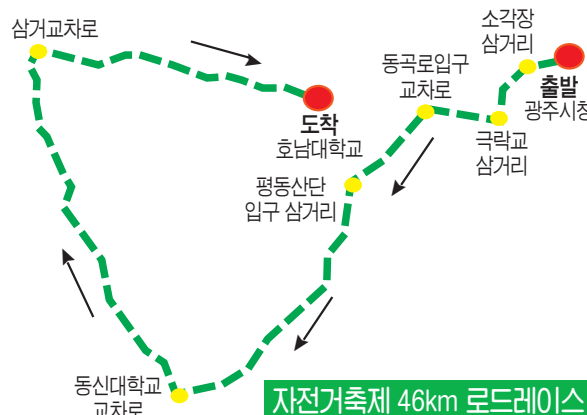
가을바람·햇살 그리고 '행복한 질주'

김대현·김대섭 7언더 공동선두

2010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31일 스타트
46km 로드레이스 단체·개인전 참가 서두르세요

노랗게 익어가는 남도의 가을 들녘을 달리는 은륜 대향연이 펼쳐진다.
2010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가 오는 31일 광주와 나주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전남도·광주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광주시 사이클 연맹이 주관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건강과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호남 최대의 자전거 축제가 될 전망이다.
대회는 46km 로드레이스 단체와 개인전으로 나뉘어 치러지며 전국 사이클 동호인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광주시청을 출발점으로 해 평동공단입구 삼거리-동신대 앞 교차로-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호남대학교 정문까지 레이스를 펼친다.
단체전은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되며 4인 1팀으로 구성해

야 한다.
팀원 구성에는 제한이 없지만 만 18세 이상으로 MTB(바퀴사이클 26~27인치, 바퀴폭 1.75인치 이상, 전·후브레이크 장착)자전거 및 헬멧을 소지해야 한다. 대회일 기준으로 만3년 이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및 경력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단체전 참가자 외에 개인전 참가자도 모집한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사이클 동호인들은 인터넷(http://bike.kjmedia.c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단체전의 경우 팀당 10만원, 개인전은 3만원으로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 배낭, 칩, 간식이 지급된다.
풍성한 경품도 마련됐다.
단체 1위에게는 70만원, 2위 50만원, 3위 30만원, 4위 20만원, 5위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남자 개인 부문에서는 1위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5만원, 4위 10만원, 5위 5만원



자전거축제 46km 로드레이스

의 상금이 준비됐다. 여자개인 부문 상금은 1위 20만원, 2위 15만원, 3위 10만원이다.
순위 입상자 외에도 포토제니카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이 수여된다.
대회는 오전 8시 개막식을 통해 막이 오르며 오전 8시30분 출발과 함께 참가자들의 힘찬 질주가 시작된다.
참가자는 지정된 출발지점과 끝인지점을 통과해야 하며, 기록측정을 위해 경기 시작 전 배부 받은 기록측정용 칩을 부착해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파인비치오픈 첫날

김대현(22·하이트)과 김대섭(29·삼화저축은행)이 한국프로골프투어(KGT) 한양수자인-파인비치오픈(총상금 3억원) 1라운드에서 공동 선두에 나섰다.
올해 상금 랭킹 1위(4억641만원)를 달리고 있는 김대현은 14일 해남 파인비치 골프장(파7,7347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를 쳤다.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켈리파인스플 도전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김대현은 최근 이어진 슬럼프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였다.
드라이브샷 거리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대현은 "아웃오브바운즈(OB)가 많이 없는 등 코스가 잡타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마음 편하게 티샷을 날릴 수 있었다"며 "손목 통증도 지난해 한국오픈에서부터 많이 좋아져 이번 주에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8월 조니워크오픈부터 6개 대회에 출전해 10위 내에 한 번밖에 들지 못했던 김대현은 "여름에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손목 부상까지 겹쳤다. 이번주 우승을 차지해 삼급왕을 확정 짓고 미국으로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11월 임대 예정인 김대섭도 버디만 7개를 뽑아내며 공동 선두로 첫날을 마쳤다. 김대섭은 4번 홀(파4)에서 7m, 17번 홀(파5)에서 10m 등 긴 거리의 퍼트를 속속 집어넣으며 타수를 줄였다.
김대섭은 "오랜만에 보기 없이 경기를 끝냈다. 퍼트가 잘 돼야 경기가 잘 풀리는데 오늘 그린 상태가 좋아 원하는 대로 퍼트가 들어갔다"며 "11월 임대하기 전에 우승하고 싶었기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진원(32)이 6언더파 66타를 쳐 1타 차 단독 3위에 올랐고 강경남(27·삼화저축은행), 김도훈(21·넥슨), 강민웅(30·토마토저축은행)이 나란히 5언더파 67타, 공동 4위로 첫날을 마쳤다.

/연합뉴스

AFC챔스리그 4강 치르는 '알 사뱌' 영암에 등지 뜬 까닭은?

'8강 승리의 기운을 되살린다'
201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20일 오후 7시30분,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 일화화과 맞붙는 알 사뱌(사우디아라비아)이 또 한 번 '오일달러의 힘'을 과시하며 전세계로 입국, 영암에 등지를 틀어 눈길을 끌고 있다.
프로축구 관계자는 14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멤버인 송종국이 포함된 알 사뱌이 오늘 오후 무안공항을 통해 전세계로

입국해 영암 현대호텔에 여장을 풀다"며 "선수단은 전남 구단주 소유의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출발했다. 시차적응을 위해 경기일보다 일주일 먼저 입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알 사뱌는 지난해 전북과 치른 8강전에서도 이번과 똑같은 동선으로 움직였다. 전세계로 편안하게 입국해 산자락에 위치한 영암 현대호텔에서 차분하게 경기를 준비하며 4강 진출의 기쁨을 맛봤다.

이 때문에 알 사뱌는 경기 장소가 성남임에도 8강 진출의 좋은 추억을 되살리려고 베이스캠프로 영암을 선택했다. 호텔 뒤편에는 축구장도 있어서 시차적응과 전술훈련에 최적의 조건이다. 알 사뱌는 목포에서 탑승을 마치고 오는 18일 무안공항에서 대기하는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성남전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프로축구 관계자는 "알 사뱌 감독이 8강전을 치르면서 지냈던 영암에 너무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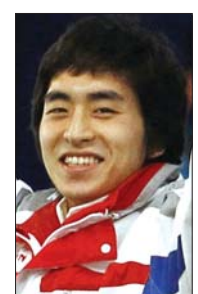
8강 승리 일궈낸 약속의 땅 시차적응·천혜의 축구요새 전세계 입국...결승행 다짐

해서 이번에도 똑같은 동선을 잡기로 했다"며 "호텔이 산자락에 자리 잡아 조용하고 입구까지 600m 정도 떨어져 선수들이 편 생각(?)을 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 스타일이다. 오직 축구만 생각할 수 있는 장소다"고 귀띔했다.

/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

올해 한국 스포츠를 빛낸 최고의 선수로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22·한국체대)이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8회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수상자로 이승훈을 선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승훈은 지난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1만m 금메달과 5000m 은메달을 획득해 한국을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5위로 이끌었다.
연구상에는 김기진 계명대 체육학과 교수, 공로상은 지중섭 대한불림협회 회장, 진



홍상에 장영도 대구시 생활체육회장, 특수체육상에 한민규 한국체대 특수체육과 부교수가 받는다.
또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하는 체육훈·포장 수상자로 유도 최민호, 양궁 윤옥희와 구자청 감독, 사격 진종오와 변경수 감독, 김선일 코치, 불림 박명환 코치, 빙상 박해원, 강윤민과 송석우 코치 등 10명을 선정해 최고 영예인 청룡장을 수여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2연패를 기록했던 김연지와 김봉근 코치, 배구 장병철에게는 맹호장이 수여됐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필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